대규모 국제 이벤트 - 건설 투자 ·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크다

- 여수 해양 박람회 및 2010 동계올림픽 유치 기대, 사후 활용 방안에 만전 기해야 -

우리나라는 2002년에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오송 바이오엑스포 등의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이미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혹은 중소 규모의 이벤트 개최는 건설 투자를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 시설 확충 등 초기 준비 기간에는 필연적으로 건설 투자를 수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이벤트 개최는 도로, 항만 등 관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물류 수송, 지역간 교류 기반이 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대규모 이벤트 관련 시설 건립과 행사 개최 이후 비효율적인 시설물의 활용 및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대규모 이벤트 개최에 따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주변 환경 개선 및 관광 인프라의 확충 등으로 인한 부수적인 파급 효과의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대규모 이벤트 개최에 따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2002년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및 주요 해외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건설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의 규모를 제시하기로 한다. 둘째, 대규모 이벤트 행사 개최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 활용 방안 특히 1회성의 대규모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후 관련 시설물을 관광 측면과 연계하여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부산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직간접 건설 투자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연 10조 4,644억원, 고용 유발 인원은 27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규모 이벤트 관련 건설 투자 효과

이벤트란 '특정 목적을 갖고 특정 기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각각 개별적, 직접적으로 자극을 체감시키는 미디어로 공공 이익, 기업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세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사건 또는 행사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규모 이벤트에 해당되는 메가이벤트(mega-event)는 '방문객 수는 100만명 이상이어야 하고, 대규모의 투자 비용이 수반되고, 반드시 관람하고 싶은 행사(must-see event)'라는 명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대규모 이벤트는 방문객 수와 행사 규모, 그리고 행사 투자 비용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대규모 이벤트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대규모 이벤트가 가져오는 건설 투자와 이벤트 개최시 관광객의 유치 효과로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관광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지역 이미지의 상승과 시설물 건설의 관광 상품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과 월드컵, 박람회 등과 같은 대규모이벤트 유치에 적극적이다.

2002 월드컵의 경제 효과

한·일 공동으로 개최한 2002년 월드컵 경기는 건설과 관광, 스포츠·레저산업 부문의 성장을 주도한 촉진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개최 이전에 KDI에서 추산한 건설 관련 투자 지출액은 2조 3,882억원(경기장 및 주변 도로 포함)과 함께 지방에 국제 수준의 호텔 건설에 약 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한바 있다. 월드컵 관

련 관람객에 의한 소비 지출 및 조직 운영 경비를 포함한 지출은 1조 825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건설 투자 및 관람객의 총 지출액에 의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한 결과 고용 창출 35만명, 생산 유발 효과 11조 4,797억원으로 산출하였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조 3,357억원으로 2000년 기준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이벤트 개최로 인한 국가 이미지 증대로 인한 수출 증대, 관광산업 진흥, 스포츠와 스포츠 마케팅 산업의 진흥, 지방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이미지 제고에 따른 무형의 파급 효과를 포함하면 계량적으로 환산한 결과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월드컵 경기 직후 발간된 한국관광공사(2002)의 보고서에 의하면 월드컵 경기 관람객의 총지출액은 5억 2,2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에 파급된 직간접 및 유발 생산 파급 효과는 13억 5,100만 달러(1조 6,900억원)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득 유발 효과는 3억 7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 유발 효과는 3만 1,349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억 1,300만 달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 함께 다른 산업에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파급 효과를 계산하면 대규모 이벤트로 인한 산업간의 신규 수요 창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산업간에 파급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월드컵 경기 개최는 건설산업을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 아시안게임의 효과

한편, 부산 아시안게임의 경우 월드컵 이벤트와 연계한 경기장의 활용으로 시설 투자에서의 자원의 낭비적인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건설 투자에 치중하였다.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건설 관련 직간접 투자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연 10조 4,644억원, 고용 유발 인원은 연 27만 2,004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회 기간 중 외국 관광객의 소비 지출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1,664억원, 고용 유발 인원은 3만 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대규모 이벤트 개최로 인한 건설 투자의 유치는 지역 사회의 열악한 도시 기반이 정비되고 관광 인프라의 확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스포츠를 활용한 도시 발전 전략

해외 사례를 볼 때 자동차 경주로 유명한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스포츠를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의 도구로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츠 시설의 건설과 유수한 스포츠 이벤트를 끌어들이는 마케팅을 지원하였다. 스포츠 시설의 증·개축을 위해 1억 9,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이로 인한 아마추어 스포츠 이벤트가 지역 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10억 5,0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330여 차례의 아마추어 스포츠 이벤트에 약 453만명이 관람하였으며 21만 5,000명이 직접 참가하였다. 관람객의 약 68%와 경기 참가자의 76%가 인디애나폴리스시의 외부에서 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디애나폴리스는 1959 88년 사이에 스포츠 부문에 대한 투자로 개인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지역의 경제 발전 수단으로 스포츠를 활용한 도시 발전 전략이 주요한 역할을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외부 환경 무시한 투자는 위험

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경우 대규모 이벤트 건설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의 경우 기본 시설물의 건립에 2억 5,000만 달러, 대회 운영비 6,000만 달러 등 3억 1,000만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복권, TV 방영권, 기념주화, 우표 등의 판매 수입으로 3억 1,000만 달러를 조달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재정 자립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시설물 건설에 착수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여 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과 공기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1차 석유 파동의 결과 원자재와 시설재의 가격이 앙등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파업으로 건설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회 개최 후 결산한 결과 비용은 12억 3,000만원이 늘어났고 심지어 대회 개최 기간 중에도 경기장이 완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몬트리올시가 재정적인 곤경에 빠진 원인은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에 과잉 투자하였고 경제성을 무시한 대회 준비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림픽 개최 이후 경기장의 관리 소홀로 시설의 유휴화를 초래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이벤트 관련 시설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규모 이벤트의 사례 연구로 볼 때 특정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의 사후 운영에서 전략적인 운영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투자 규모를 결정하고 시설물 건설 사후에도 지역의 특성과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벤트의 이미지가 포함된 시설물 건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벤트 관련 시설물의 사후 활용 방안

대규모 이벤트 관련 시설물을 특정 목적의 행사 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패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이벤트 개최는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련 기반 시설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2010 동계올림픽 및 여수 해양 박람회 등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경우, 월드컵 개최의 후속 건설 투자 기회와 관광 인프라 구축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관광 매력물로서의 기능 부여

첫째, 대규모 이벤트의 경우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건축물 이미지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관광 매력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국제 이벤트와 문화 관광적인 요소와 접목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례로 서울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스포츠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동호인 중심으로 사후 이벤트를 개최하고 관광 코스로 개발하여 경기장 시설물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이벤트 개최 도시의 상징적 특성과 독특성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과의 이미지와 조화가 되는 사후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

둘째, 이벤트 관련 시설물을 지역 주민 복지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 개최 이후 관련 시설물을 지역 주민의 여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주민의 복지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일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운영 주체는 수익 사업을 병행하여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규모 이벤트 개최 사전에 시설물의 운영 계획에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전 계획 단계에서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준비 체계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컨벤션 시설에는 국제 회의 유치가 제격

셋째,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벤트로 컨벤션산업을 들 수 있는데 컨벤션 시설의 경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제 개발과 주변 여건 개선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 회의 유치에 따른 파급 효과는 국가 홍보나 상호 이해 증진, 평화 통일 외교 정책 구현 등과 같은 정치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외화 획득을 통한 국제 수지 개선, 사회 기반 시설의 발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국제 회의 참가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개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보다 소비 수준이 2 3배 높은 고급 소비를 한다. 코엑스와 같은 컨벤션 시설의 경우 사전적으로 건설 투자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국제 회의 참관객의 높은 지출로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물이다. 따라서 사후 활용 계획에서 시설물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후속 이벤트 개발과 지속적인 국제 회의 개최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관광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심을

대규모 이벤트의 개최 계획 수립 이후 첫 단계는 시설물 건설과 관련된 투자 효과로 이어지고, 다음으로 이벤트에 의한 방문객의 유치에 의한 효과, 주변 환경 개선의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건설 경기로 인한 다른 산업과의 연계 효과, 관광 인프라의 확충과 관광 매력물로서의 역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 진흥의 촉매제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2010년 동계 올림픽 및 여수 해양 박람회 등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경우, 건설 투자시에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 구축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통하여 이벤트의 이미지와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한 시설물 건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대규모 이벤트 유치는 월드컵 개최의 후속 건설 투자 기회와 관광 인프라 구축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시설물 건설 투자에서는 시공과 설계에 있어서 특히 1회성으로 끝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관광 매력물이 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관광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규모 이벤트의 개최, 건설 투자의 확대, 관광 인프라 구축은 잠재 관광 수요 창출을 유도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의 이동과 지출의 확대는 외화 획득과 국내 생산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국민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전망해볼 수 있다.

이강욱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